

2024년 전북도정 운영 방향

# 10대 역점시책으로 미래 결실 파종에 '온 힘'

전북도는 2024년 도정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도민의 질박감 속에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전북의 미래산업 선점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2024년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정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 속도를 최고조로 올릴 계획이다.

도는 모든 것이 경쟁인 시대에 전북이 승부수를 띄울 해법은 속도이므로, 각 분야마다 최대의 속도를 내고 특별자치도 원년 도민과 함께 성공시대를 연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해 전북은 △10.4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유치,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익산·완주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추진 등 기업과 산업에서 투자 활성화 성과를 이어 나갔다.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어려운 여건 속 △2년 연속 9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하는 등 2024년 전북 경제성장

**전북특별자치도 개막·미래성장기업 유치**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농생명산업 수도**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365일 재난안전 관리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RIS·RISE 선정, △글로벌대학 선정, △스마트팜 창업특구 공모 선정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곳곳이 척박한 환경을 기를진 땅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경제 체질개선에 힘쓰고 미래 결실을 맺을 씨를 뿌리는 자세로 2024년 10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역점시책으로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 개막, △미래 성장기업 유치, 친기업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 강화 지역성장 견인, △새만금 글로벌 명품

도시 실현 및 균형발전 SOC 구축,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지속 발전 가능한 에코윙 1번지 조성, △365일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으로 함께 혁신 동력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전북도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최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준비하고 역점사업의 실행기간 단축 노력과 2단계 특례 발굴과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참여예산제 도입과 청년합성 패키지 확대를 청년 참여 거버넌스와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글로벌 경제교류 성과를 꾀하면서,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금융산업·창업생태계 역동성 제고에 나선다.

삼성스마트공장을 3년간 매년 100개씩 확충하고 이차전지·방산·바이오 산업 등 역점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차 전환과 재생에너지·수소·탄소 상용화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전예타 추진과 종자·미생물·동물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공급 및 확산 등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농생명 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계속한다.

국제 케이팝학교 기본구상, 수중고교학센터 예타 재도전 등 문화·체육·관광 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에 기반한 인재와 기업을 육성한다.

도로·공항·항만 등 중단되었던 새만금 SOC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광주-대구 철도 등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으로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과 동서 균형발전 SOC를 갖춰나간다.

전북형 무상보육과 계층별 돌봄체계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통합재활병원 건립, 권역 응

급의료센터 확대를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주기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11개 시군에는 삼천리길을 조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에코윙 1번지를 만들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지역권 산림치유원 시범 개장과 공공하수처리장을 지속 확충한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하게 대응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RIS·RISE·글로벌30 3대 교육혁신 사업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고 기업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동시에 대외 소통 협치 활성화 및 지역특화형비자 인구조사 전 지역 확대 등 외국인·이민정책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진다.

전북도는 민선8기 2년차 보배를 빛기 위해 부지런히 구슬을 꿰어가고 있다면서, 과거와 똑같은 노력이 아닌 최소 1배반, 2배 이상의 노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혁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새해 의지를 복돋았다.

/김재훈 기자



## “새해, 자치분권 완성 위해 뛰고 또 뛰겠다”

### 도의회, 소식지 '전북 자치도의회' 제85호 발간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3 겨울호(제85호)'가 발간됐다.

제85호에는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의 2024년 새해인사가 실렸다. 의원들은 “새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나는 헤이만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북에서 자치분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겨울호에는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특례가 소개됐다. 또한 지난해 연말까지 이뤄진 새만금 예산확보 활동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회활동도 정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열렸던 제404회 임시회와 제405회 정례회 주요 활동도 수록됐다. 동부권 발전 특례 마련, 인구감소 대책 촉구 등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도정질문과 응급 및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충 등을 강조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요약됐다.

또, 결혼이민자 국제취득 지원조례·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등을 비롯해 제404회 임시회와 제405회 정례회 회기에 제·개정된 53건의 조례와 15건의 건의결의안 내용도 정리됐다.

지난 2023년 한해동안 전북도의회가 펼친 의정활동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새해에도 소식지를 통해 도민의 의정활동 내용을 전하겠다”며,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이번 총선에 보내는 민심 ‘변화’ 전북정치 혁신 기회로 만들 것”

황현선 예비후보 “구태에 갇힌 낡은 정치와 결별해야 과반 넘어선 총선 현역 교체론, 전북정치 변화 기회”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2대 총선 전주병에 출마를 선언한 황현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가 “전북 전주의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혁신도 없다”며 “변화를 원하는 이번 총선을 전북정치 혁신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3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황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대면한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열이면 열,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부터 전북정치까지 싹 바뀌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중앙은 물론 지역언론 신년 여론 조사에서도 현역 교체론이 60%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총선에 보내는 민심은 명확하게 변화라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전북, 전주에 먹고 살 것이 없다, 쫓겨나고 서민 발육 공간, 공무원 말고 일자리가 있는나며 시민들의 한탄이 이어진다”며 “이 원인은 바로 기득권 정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이런 시민들의 한탄은 전라북도의 정치경제가 지역발전 전을 저해하고, 기득권 유지를 더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전북의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 중진론을 내세우는 총선 출마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북은 수십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데, 정치인 자신의 선수만 높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예비후보는 “낡은 것과 결별하고 기득권정치를 반드시 허물어야만 전북의 변화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자리만 얻고, 지키는 낡은 정치의 성을 허물고 시민과 함께 길을 내는 것이 정치다운 정치”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이재명 패유 기원”... 성기청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중단

더불어민주당 성기청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지난 2일 ‘민생과 희망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부산에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과한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습격



으로 쓰쳐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생명이 지장이 없다는 뉴스를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배후와 범행 동기를 명명백백 밝혀 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의원총회 후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신년인사회 및 제18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와 윤방섭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정운천·강성희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 발전에 힘 모으자”

**전주상의 2024 신년인사회**  
**전북 경제대상 시상식과 병행**  
**현대차 전주공장, 대상 수상**  
**양명한 대주코레스 대표, 본상**  
**신원건설, 기업부문 수상 영예**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가 주관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신년인사회 및 제18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3일 호텔라한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윤방섭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정운천, 강성희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과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등 도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계 대표와 지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4년 전주상공회의소

의소 사자성어로 선정된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보합대화(保合大和)의 뜻처럼 한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다짐했다.

윤방섭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도 내수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을지라도 우리 상공인들이 주체가 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북 발전을 선도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지역 사회 공헌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고,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의 순조로운 추진과 올해 계획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공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전북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경제인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전북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방안을 마련해 특별한 전북시대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의 한인 경제인들이 방문해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비즈니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와 병행해 열린 제18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에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본상에 경영인 부부는 양명환 대주코레스(주) 대표이사, 기업부문은 신원건설(주)(대표이사 강범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제대상 수상자들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난해 12월 20일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심사위원장으로 경제유관기관 관계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김재훈 기자

## “총선 승리 다짐”...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신년 해맞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당원들은 최근 정읍동화혁명 100주년 기념탑에 모여 동화혁명정신 계승 참여 및 22대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은 정읍시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임승식 도의원, 염영선 도의원 및 정읍·고창 시군의

원들과 당원 300여명이 참석해 내장생태공원 걷기, 기념행사(동화혁명정신 계승 참여), 잉어 낚시, 해맞이, 떡국식사와 갑진년 새해의 소원을 빌고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다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민주 윤준병 의원, 6~7일 정읍·고창서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오후 2시 정읍시 예술회관과 7일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21대 국회 4년간의 여정’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해결사 4년의 성과’ 의정보고회에서는 4년전 꾸었던 지역 발전의 꿈을 하나 하나 해결해가는 과정과 미래발전상,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과 변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10년 이상 묵은 현안 해결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꿈을 소개하고 지난 4년간 그 꿈을 실현해 내는 과정을 설명한다. 정읍의 경우,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 연수도시 정읍 실현, 제약의료 산업의 호남 중심지 조성 등 21대 총선과정에서의 꿈이 소개된다.

고창의 경우,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드론항공산업의 중심지 고창 실현, 청정고창을 통한 산업육성, 농촌공간 재정의 시범지 고창, 어민과 어촌의 경쟁력 확보 등이 소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